

- 본문 : 에베소서 6장 14~17절
- 제목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4. 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악한 영의 권세를 대적하여 이기려면 싸움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르고 있다. 6~7개로 구성된 전신갑주 중에서 3가지 종류를 살펴보았다. 우선 3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불행하게도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적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또 있겠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14~18절까지 소개된 내용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정식으로 무장을 갖추고 출전할 때 꼭 갖추어야 했던 장비와 무기들이었다. 네 가지로 구분해서 그 이름을 적어보라.

* 호신용 :	* 공격용 :
* 방어용 :	* 경비용 :
2. 호신용은 적에게 허점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몸의 중요한 부분을 무장하는 장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것들이 몸을 보호하는 장비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본 갑주들 중에서 생각해 보라. (14~15절)
3. 마귀의 첫 번째 공격무기는 ‘속임수’이고, 두 번째 공격무기는 ‘정죄’이며, 세 번째 공격무기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4.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살펴본 세 가지를 토대로 내 삶에 가장 깊어 들어와 있는 마귀의 공격은 어떤 것인가? 왜 그 부분에서 자주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결단하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요청하라.
 - * 진리의 허리띠 / 요한복음 8:32 ; 14:6, 에베소서 4:17~24, 시편 139:23~24
 - * 의의 호심경 / 잠언 4:23, 요한일서 1:9, 로마서 8:35~39
 - * 평안의 복음의 신 / 고린도전서 15:1~8, 요한일서 5:11~13, 로마서 1:16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모든 정죄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이다. 교회가 879명의 태신자를 작성하고 기도할 때 나의 태신자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라.

· 말씀기도제목

1. 영적인 적의 실체가 인생을 시험하고 무너지게 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2. 마귀의 ‘속임수’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비난과 정죄”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심”에 대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태신자를 힘을 다해 섬기는 영가족 되게 하옵소서.

